

수도권본부 포상금 전액 불우이웃에 기부

- '11년도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 최우수·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11년도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수행성과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170만원) 전액을 지난 22일 장애인 후원단체인 사단법인 초록에 기부하였다.

본부는 지난 2월 23일 '11년도 26개 주요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수행평가에서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과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사업'이 각각 최우수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이사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희광 남부건설처장은 "전 직원들이 최우수 및 우수 프로젝트로 뽑힌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포상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원본부 수익구조개선방안 첫 수확

- 허가방식 개선과 신수익모델 개발로 수익 증대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연초 이사장 업무보고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사용허가방식 개선과 신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사용허가 담당자들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미활용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높은 낙찰률을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지자체와 토지사용을 희망하는 관련자에게 공개입찰 시행계획을 개별 통보하여 참여를 유도한 결과 중앙선 영주시 관내 토지는 309%, 태백선 태백시 소재 토지는 무려 1,000%로 낙찰되었고, 영동선 정동진역 인근 임야는 지형이 고르지 못하고 수목이 있어 활용이 불가해 보였지만 신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철도부지내 최초의 사바이벌 게임장을 유치하여 공개입찰 결과 150%에 낙찰되어 금년 3월중에만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본부 관내 토지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수익금은 크지 않지만 허가방식의 개선과 신수익모델을 개발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부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본부 정영균 기자)



계시판

주요뉴스 (3. 12 ~ 3. 22)

- CEO 칼럼...국제화시대, 평준화가 정답은 아니다(서울신문 3. 12)
- 철도시설공, 삼성SDS에 6개월 입찰제한(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3. 12)
- 전남~제주 해저고속철 추진으로 '기덕' (경향신문 3. 12)
- KTX정읍역사 원안추진 서명부 철도공단 전달(전북일보 3. 12)
- 철도운영정책제 도입 찬성...강근식 시설사업본부장(국회보 3. 12)
- 총선철·민원철회 철도사업비 최대 124배로 경증(동아일보 3. 13)
- 전라선 고속화 사업 내달 마무리... KTX 시속 230km (조선일보, 광남일보 3. 13)
- 광주서 KTX타고 인천공항 간대(광주일보 3. 13)
- 전남~제주 해저터널 용역 '혼선' (무등일보 3. 13)
- 내년부터 열차내 '음주소관' 철도경찰이 범칙금 직접 부과(서울신문 3. 13)
- 中 고속철 시험구간 붕괴(영남일보 3. 13)
- 아시아나항공 4년 연속 청조경영 대상(중앙일보 3. 14)
- 호남선 KTX, 인천공항까지 간대(동아일보 3. 14)
- 경춘선 레일바이크 이르면 6월 운행(서울신문 3. 14)
- 전라선 왕궁 새달 30일 개통 운산~여수엑스포 3시간대(서울신문 3. 14)
- "이공 안 할 강매역 신축비를 왜 우리더러..."(한국일보, 한겨레신문 3. 15)
-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본궤도...2022년 완공(한국일보, 국민일보, 경북일보 3. 15)
- 정부, 성과공유제 확산 속도낸다(동아일보, 서울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 04)
- 삼성SDS 2300억 수주... '입찰제한' 유명무실(한겨레신문 3. 15)
- "신규개설 철도노선 운영권 철도공사에 민간위탁 가능"(세계일보 3. 16)
- 보광리~금광리~강릉 구간 11월 착공(강원일보 3. 16)
- 경부고속철 '선로전환기 허위서류 제재' 공방 결국 법정외(서울신문 3. 16)
- 신축비 논란 경매역 강매역 공사비 93억원 더 들어갈 듯(한국일보 3. 16)
- 고속철 케이블 끊어다 판 간 큰 철도범(중앙일보 3. 16)
- 대전시의회,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촉구 (충청투데이 3. 19)
- 공공저작물 복제한 철차없이 오늘부터 무료 이용(파이낸셜, 한국경제, 강원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광남일보 3. 19)
- 인도·카타르 등 철도건설 붐...리노스·대타이아이 등 관심 (한국경제신문 3. 19)
- 이용객 3억명...기술아카데미 통해 인재 육성 (한국경제신문 3. 19)
- 현대로템, 타카에 전동차 공급 계약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3. 19)
- 철도공단-삼성SDS 결국 법정행(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3. 20)
- 호남鐵 '계룡터널' 오늘 관통(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3. 20)
- 철도역 주변 국유재산 무단점유 조사(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3. 20)
- 달리던 KTX 또 멈춰(충청투데이 3. 20)
- 코레일 전기사업소 직원...교합선 자르며 양심도 질렸(조선일보 3. 20)
- 서울서 여수까지 2시간57분(전남일보 3. 20)
- 경영평가 스타트...공공기관 '초긴장' (한국경제신문 3. 20)
- 호남고속철도 계룡터널 관통(조선일보, 중앙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3. 21)
- 발빠른 환경조사... '천성산 사태' 없었다(서울신문 3. 21)
- 연남동 옛 철도부지 나무 심기 행사(조선일보 3. 21)
- 옛 경춘선 19.4km 레일바이크(조선일보 3. 21)
- "수서발 KTX민영화는 경영개선 위해 시설·지분 매각 아닌 운영권 임대하는 것" (세계일보 3. 21)
-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본격 '시동'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3. 21)

정기안전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지난 6, 7일 이틀간 현장 안전총괄책임자 및 공단 직감독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시행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 행사는 공단 6대 경영목표중 하나인 '무재해 안전시공' 달성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안전결의문 낭독, 특별 안전교육, 철도안전법령 등을 통해 안전책임자로서의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현장에서 자체 시행한 자율점검결과 및 개선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수도권본부는 현장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내실있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 '무재해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임병일 기자)



보성~임성리 착수보고회 개최

-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추진 의지 공감대 형성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14일 설계사 및 담당자, 관련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임성리 노반 보완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은 경전선 개량과 경부선과 호남선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금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정거장에 대한 열차운영계획을 반영한 시설규모 조정 등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추진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양성직 일반철도처장은 이 자리에서 설계 추진시 설계유류, 과잉설계나 민원유발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철도건설 사업이 윤리경영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건설본부 유창호 기자)

수서경찰서, 삼성SDS를 사기·업무방해혐의로 검찰 송치

- 경부고속철도 선로전환기 입찰시 허위서류 제출 혐의 관련 -

공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을 따 낸 삼성SDS를 지난해 11월 8일 사기·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삼성SDS 일부 관계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3월 19일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삼성SDS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 입찰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고속철도 등 콘크리트케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해 공단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1년 사이에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과 울산역에 설치한 선로전환기가 무려 500여회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삼성SDS는 납품한 불량 제품의 장애에 대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나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고, 300km/h 운행가능 검증시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도 해태하여 부득이 삼성SDS(주)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아울러 지난 3월 7일 삼성SDS에 입찰참가제한처분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이 중에 입찰참가제한처분은 허위실적 서류 제출과 관련한 형사고소사건이 아직 경찰수사 중임에도 공단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 하여 삼성SDS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 경찰이 삼성SDS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동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토해양위 위원들이 "삼성SDS의 선로전환기 장애는 시속 300km 운영실적이 없는 제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입찰 당시 삼성SDS컨소시엄측이 스페인 고속철도에 하이드로스타가 공급되었다고 했지만 정작 스페인에서 하이드로스타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동 제품이 설치 및 운행되고 있는 상황을 스페인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여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공단을 질타한 바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적합한 계약집행 확립을 위해 허위서류 제출 등 입찰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예외 없이 형사고소, 부정당업자제제, 손해배상청구 등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사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박종상과장 빙모상
- 발 인 : 2012년 03월 17일(토)
- 호남본부 건설처 최삼호차장 장년훈
- 일 시 : 2012년 3월 24일(토) 오전 11시 30분